

# 경기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

##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발 방지 위한 방역 강화 조치 지속 추진

경기도는 지난 7월 16일 파주시 소재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내려진 양돈농가 53호(발생 농가에서

반경 10km 내)에 대한 이동제한 방역조치를 21일 24시부터 모두 해제했다. 지난 7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즉시 도는 5개 시군(파주, 양주, 고양, 김포, 연천)에 대해 48시간 일시이동중지, 역학 농가 돼지 이동 차단, 타 지역과의 돼지 출입 금지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해제 조치는 마지막 발생 농장 가축 매몰 처리 완료일(7월 20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고, 방역대 농장의 사육 돼지 및 환경에 대한 정밀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이동제한 해제로 방역대 내 양돈농가와 관련 축산시설의 출입 차량, 가축, 생산물에 대한 이동 제한이 모두 풀리게 되어 양돈농가의 정상적인 경영 재개가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야생 멧돼지 등 오염원이 농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농장 방역시설 점검, 돼지 출하·이동 시 사전 검사, 양돈농장·차량·축산시설에 대한 소독 강화 등 방역 대책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남영희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이번 이동제한 해제는 방역에 참가한 농가와 관계 기관의 노력 덕분이며,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방역대가 해제되더라도 양돈농가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파주시 첫 발생 이후 전국 53건 중 경기도에서 24건이 발생했다. 올해는 양주 3건, 파주 1건이 발생했으며, 예방적 살처분 6 농가를 포함한 총 3만 744마리가 살처분됐다.

한영덕 기자 press582@honguaptimes.com



▲소독 모습(경기도제공)

## 강릉시, 환경부 강릉 가뭄 현장 점검 실시

### 가뭄 대응위한 중앙정부·도 적극 지원 건의

강릉시는 22일 금요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오봉저수지를 방문하여 가뭄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시의 대응 현황을 브리핑하고 향후 정부 지원 사항을 건의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 원주지방환경청

장,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 기관이 함께했으며, 강릉시는 제한급수 추진, 응원급수 협력, 민방위급수시설 가동 등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전 가구 계량기 50% 잠금 제한급수 시행 ▲공공시설 수

압 조절 ▲공공수영장 휴관 등 질수 대책과 함께 ▲인근 지자체와의 협력 ▲보조수원 활용 등을 통해 하루 약 3만 7천 톤의 원수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릉시는 장기적인 가뭄 대응을 위해 ▲운반급수 예산 지원 ▲오봉저수지 시수위 이하 생활용수 공급 시설사업 지원 ▲연곡-홍제 간 송수관로 복선화 ▲공공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국가계획 반영 등을 환경부와 강원

특별자치도에 건의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강릉시는 생활·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가뭄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릉시는 앞으로도 범시민 물절약 운동과 중앙정부 및 강원특별자치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가뭄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한영덕 기자 midal0210@naver.com

## 괴산군, 토마토뿔나방 피해 방제용품 추가 지원

### 하반기 토마토 재배 농가 전원 대상

충북 괴산군은 하반기 토마토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을 돕고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토마토뿔나방 방제 물품을 추가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토마토뿔나방은 개체수가 빠르게 확산되며 잎에 흰색 터널을 만들거나 열매와 줄기에 구멍을 뚫어 수확량 감소를 초래하는 등 피해가 큰 해충이다. 현재 괴산군 관내에서는 피

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군은 관내 모든 토마토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관행 농가에는 일반 화학농약 2종을, ▲친환경 농가에는 고미교란제와 해충 관리용 유기농업자재를 지원한다.

또한 괴산군 농업기술센터는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체 토마토 농가를 대상으로 격주 단위 현장 방문 컨설팅을 실시하며, 적기 방제를 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해 농가 소득 증대와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괴산군 관내 토마토 농가주가 토마토뿔나방 고미교란제를 설치하고 상태를 지켜보고 있다.

## 전북 농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논의의 장' 열려

### 전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전략 모색

전북특별자치도는 22일 김제 백구에 위치한 농촌경제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에서 '전북형 스마트농업 육성 전략과 실행 방안'을 주제로 '미래농업 전북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기후위기, 인구 감소, 농촌 고령화 등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농업 정책의 방향성과 실행전략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은 전북농어업·농어촌위원회와 전북연구원이 공동 주관했으며, 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시군 관계자, 스마트농업 종사자, 농업인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손수련 지역농업네트워크 팀장은 첫 발제로 나서 '전북 스마트농업의 현주소와 육성 전략'을 주제로 스마트농업 제도 및 정책 배경, 전북의 추진 현황, 육성 목표와 추진전략 등을 발표했다. 이어 김세종 진스마트팜 대표는 수직농장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종원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윤주연 전북대학교 교수, 이광진 로즈피아 이사, 정재관 전북도 스마트농산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스마트농업의 정책 실행방안과 현장 적용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황양택 위원장은 "스마트농업은 기후변화와 노동력 부족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지

만, 초기 투자비용이 커 일반 농업인에겐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며 "농민 누구나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체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선식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농업은 기후변화, 인구감소, 해외시장 개방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데이터와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오는 9월 5일과 9월 17일에 2차, 3차 포럼을 이어가며,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도청제공

## 인제군, 농촌융복합산업화 기능보강사업 3차 공모

### 시설·장비 현대화로 산업화 체계 확립

인제군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농업과의 동반 성장을 위해 '2025년 농촌융복합산업화 기능보강사업' 3차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농촌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생산기반시설을 보완·확충하고, 설비와 장비를 현대화해 농촌산업화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기간은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이며, 지원 규모는 2개소 이내로 개소당 5천만~1억 원이다.

지원 대상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예비) 경영체, 영농조합·농업법인, 농산물 제조가공업체다.

다만 개별 농가와 개인업체(인증 경영체 제외), 최근 3년 이내 동일 사업을 완료했거나 포기한 이력자는 신청할 수 없다. 지원 내용은 ▲가정간편식(HMR)·밀키트 생산라인 증·개축 및 장비 구입 ▲채널장, 홍보·전시시설 등 리모델링 ▲HACCP 인증 등 식품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시설 구축 등이다.

선정은 서류 심사를 통해 예정 건수의 1.5배 이내를 1차로 뽑고, 이후 현장·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 군산시, 벼 주요 병해충 대폭 감소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최근 벼 병해충 예찰 결과 주요 병해충 발생 면적이 전년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센터에 의하면 군산지역에 최근 문제시됐던 도열병, 이화명나방, 흑명나방, 벼멸구 등 벼 주요 병해충 발생 면적은 전년

3,442ha에서 금년 1,005ha로 대폭 감소했다. 또한 비래해충(중국에서 기류를 타고 한국으로 이동하는 해충)인 흑명나방, 벼멸구는 기압골 형성이 약해져 중국에서 날아오는 개체 수가 줄어들었고, 여름철 맑은 날씨가 지속되어 병 발생 면적도 매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가장 문제가 많았던 월동해충(알이나 벌레로 겨울을 나는 해충)인 이화명나방 발생 면적의 경우 지난해 323ha에서 평년 수준인 75ha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반면에, 여름철 고온으로 인한 포장 내 비료기가 부족해지는 비철현상으로 인해 깨씨무늬병 발생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다.

# 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 「농장 4단계 소독」 요령

**1단계 농장 진입로 생석회 도포**

농장 진입로 폭 2m 이상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충분히 도포

**2단계 농장 내부 매일 청소·소독**

※ 소독약은 용법용량의 권장 희석배수 준수

**3단계 축사 출입시 강화 갈아신기·손 소독**

세척수·물(세척조)을 이용하여 신발(장화)에 붙은 유기물을 제거 후 신발소독조 사용

※ 신발소독조 소독약은 2~3일 간격 교체

**4단계 축사 내부 매일 소독**

축사 청소·소독 순서  
① 청소·세척 천장→벽→바닥 순  
② 건조  
③ 소독약 살포 천장→벽→바닥 순

- 1주일 간격 반복 도포, 비·눈 내린 후 즉시 재도포
- 도포된 생석회 위에 산성 소독제 살포 금지

- 농장 내부, 사료빈·퇴비사·출하대 주변 매일 청소·소독
- 야생조류류 유인 요소(사료·폐사·왕겨 등) 방지 금지

- 지정된 관리자 외 축사 출입 최대한 통제
- 축사 출입시 손 소독, 방역복·위생장갑·전용장화 착용

- 사람·가축에 직접적인 소독제 분사 금지
- 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물품소독 철저 및 외부 반출 금지

농장에서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만이 가축질병 피해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